

# 민생 노동·일자리 창출 등 강화… 강남북 재정균형도

## 조직 개편으로 드러난 서울시정 방향

**지역균형발전·자영업자 지원 등  
전담 팀 신설로 문제 해결 집중  
도시철도과 확대 개편·관리 강화**

서울시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자영업자 지원, 주택공급 등 민선 7기(2018~2022년)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개편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임대주택 공급, 지역 균형발전, 안전·환경 등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남북협력, 거점 성장, 공공책임보육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직개편안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복지·교통·안전·도시재생 등 핵심 시정을 수립·조정하는

1급 기구 5개를 본부 체제에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실 체제로 격상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조직을 개편한다.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재편한다. '경제정책실'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민생노동정책관에는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설치된다. 노동정책담당관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팀'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페이,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전담한다.

경제정책실은 공공·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대학과 연계해 서울 전역에 청년창업기지 60곳을 조성하는 '캠퍼스

타운활성화과'와 지역 간 인재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역상생경제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투자창업과'를 신설한다.

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전담할 '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취약계층 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돌봄복지과'와 젠더폭력과 가정폭력에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성평등담당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산 건물 붕괴, 상도 유치원 붕괴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새로 만든다.

팀 단위였던 도시철도 담당부서는 '도시철도과'로 확대 개편해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한다. 현행 정보화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개편해 시정 전반의 스마트도시 컨트럴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통계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재편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솔루션을 발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관리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재편하고 행정2부시장 직속의 '공공개발기획단'을 신설한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제를 총괄 조정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공공개발기획단은 대규모 부지 개발 기회 때 공공기여를 끌어내는 공공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서울, 걷자!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18 서울걷자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태평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했다. /연합뉴스

## 영세 소상공인 자금지원 750억으로 확대

서울시, 추경으로 자금 150억 확보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영업자자금' 15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 금액을 기준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률은 92%에 이른다. 이중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긴급자영업자금'은 자금소진율이 97.8%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2.0%의 저

리로 최대 5년간 장기 융자해주는 자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을 통해 융자신청 접수와 상담, 융자 심사, 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 확인서, 납세 증명 등 서류는 각 지점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긴급자영업자금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해 수급자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청년세대 '역세권' 살 곳 늘린다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개정안 시행 범위 350m로… 3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를 넓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조정해 사업대상지를 확대, 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1만442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3곳(8969호)이다.

개정안은 역세권 범위 확대(250m→350m), 촉진지구 지정 대상 면적 완화(5000m<sup>2</sup>→2000m<sup>2</sup>),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는 9.61㎢에서 12.64㎢로 약 3㎢ 확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된 면적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현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10~11월 진드기 전염병 주의하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이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도내에서 발생한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전염병 환자는 629명으로 작년 전체 780명의 81%를 차지했다.

진드기 매개 전염병으로 지난해 숨진 19명 가운데 42%인 8명(쓰쓰가무시증 3명, SFTS 5명)이 10~11월에 사망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820명의 환자 가

운데 716명(87%)이, 2016년에는 전체 1천1명 중 749명(75%)이 10~11월에 발생했다.

쓰쓰가무시병 증은 텔진드기가 SFTS는 참진드기가 각각 옮긴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0~11월에 단풍구경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데다 특히 쓰쓰가무시병 증의 경우 유충이 매개하는데 알에서 깨어나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간이라 10~11월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평택상공회의소

### 중장년 채용박람회 개최

평택상공회의소가 오는 11일 평택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장년의 재취업과 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 채용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주최로 고용노동부, 평택시가 후원하는 이 날 중장년 채용박람회 행사는 경기남부권역의 40세 이상 장년층 구인 기업 20여개 업체가 참여해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직자가 이력서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업체 관계자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무료 증명 사진촬영, 이력서·면접클리닉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 할 예정이다.

/경기=이보현 기자 bhee7777@

## 남한산성 행궁, 11월부터 경기도민 관람료 무료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찾는 도민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관람료 무료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성인 기준 2천 원이다.

도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는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천 원인 주차료가 평일 3000원, 공휴일 5000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은 주차료가 면제되며 2자녀 가족도 50% 할인해준다.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2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지난해 320만명이 방문했다.

/경기=김승열 기자